

전남 '무지개학교' 200개교로 확대 운영

도교육청, 2022년까지 매년 25개교 안팎 추가 지정키로 현재 101개교 ... 전임 교육감 도입 큰 틀 유지하며 키워나가

전남형 혁신학교인 '무지개 학교'가 오는 2022년까지 200개교로 확대, 운영된다.

1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무지개 학교는 2011년 30개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공모를 거쳐 101개교로 확대됐다. 유치원 2곳, 초등학교 72곳, 중학교 23곳, 고등학교 4곳이 현재 운영 중이다. 해당 학교에는 지정연도, 학생 수 등에 따라 1000만~5000만원이 지원된다.

모두 128개교가 지정돼 20곳은 사업이 종료되고 7곳은 철회됐다.

6년간 무지개 학교로 운영돼 좋은 성과를 보인 초등학교 5곳, 중학교 3곳은 무지

개 올림학교로 지정되기도 했다.

무지개학교는 존중과 협력의 학교문화 형성, 교육과정 중심 지원 체계 구축,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 관계 구축을 4대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매년 25개교 안팎을 무지개 학교로 추가 지정해 2022년에 20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청과 기초단체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남도교육감이 지정하는 무지개 학교 교육지구도 운영 중이다.

교육지구에는 교육청 2억, 기초단체 2억 등 4억원씩 4년간 모두 16억원이 대응 투자된다.

무지개학교는 획일적이던 기존 교육방식이 아닌 '일곱빛깔 무지개처럼 학교도, 학생도 그 특성에 맞게 가르치고 배우면서 실력을 키워간다'는 목표로 출발, 그동안 학교현장 변화를 이끌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학교혁신에 대한 교사의 자발적인 연구·실천활동 확산, 지식 위주 획일적 경쟁교육에서 역량 중심 협력교육으로 전환, 농어촌 소규모학교 활성화 대안으로 부각, 지자체·지역교육시민단체·학부모 등 교육 주체 참여 확대 등이 그 것이다.


그러나 전남도교육청 역점사업에 걸맞은 지원체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교단의 불만도 나왔다.

관리자, 업무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무지개학교 업무 담당 교사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기피 현상, 교육지원청의 학교혁신 지원 미흡도 문제점으로 지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지개학교 지원 등 학교 혁신을 위한 분청 및 교육지원청 조직 개편 등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군교육지원청에 학교 혁신지원센터를 신설해 전담 인력과 지자체 인력이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 관련 조례를 지정해서 중앙기적비전과 지자체의 지속적 지원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무지개학교가 전임 장관채 전남도교육감 재임시절 도입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현장 석출 교육감이 큰 틀을 유지하면서 전임 교육감 정책을 이어받아 키워나간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다만 전남도교육청은 올해반기 전남형 혁신학교 이름을 기존 무지개학교 대신 공모를 통해 새로 정하기로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일제강점기 3대 항일독립운동

- 3·1운동
- 6·10만세운동
- 광주학생독립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계승·발전 광주시교육청이 적극 나선다

초중고생 대상 인식 조사 기념음악회 공연팀 모집 북한과 교류협력 사업도

광주시교육청이 3·1운동, 6·10만세운동과 함께 일제강점기 3대 항일독립운동의 하나로 꼽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계승, 발전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직속기관인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올 상반기 광주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 올 10월 초 결과 발표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설문조사를 통해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수준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역사교육을 해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광주 초중고교 학생 3164명(초6학년, 중2학년, 고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급별(초 25개교, 중 20개교, 고 20개교 등 총 65개교), 5개 구별로 안내해 진행했다. 설문은 일제강점기 역사의 관심도, 학생독립운동에 대한 이해, 학생독립운동에 대한 평가, 기타 역사인식 항목 등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는 올 여름방학 전 마쳤으

며, 현재 회수된 설문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내용을 분석 중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은 또한 제 89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일(11월3일)을 앞두고 기념음악회도 연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기념음악회는 10월 31일 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며, 음악회 참가 학생들을 현재 모집 중이다.

공연 참가 접수는 광주 중·고교 개인 또는 단체(학생 문화예술동아리) 누구나 가능하다. 참가 부문은 음악 전 부문(독창, 독주, 앙상블, 실내악 등), 방송댄스, 밴드, 오케스트라, 연극, 합주, 풍물 등이다. 문의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선양과(062-221-5532)로 하면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1929년 광주에서 시작, 이듬해 북한은 물론 만주까지 확산했던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매개로 북측과 다양한 교육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올 11월 제89주년 기념일을 맞아 평양에서 남북교육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 내년 90주년을 맞아 북측 학생들을 광주로 초청, 공동 기념행사를 열자는 제안 등이 그것으로, 현재까지 시교육청의 제안에 대해 북측의 공식 답변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국 농업계 고등학생 축제 제47년차 전국 FFK 전진대회 오늘 전남생명과학고서 열려

한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국 농업계 고등학생 축제인 '제47년차 전국 FFK(Future Famers of Korea) 전진대회'가 18일 강진군 강진읍 소재 마이스터고인 전남생명과학고에서 개최된다.

오는 20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전국 영농학생 대회는 전남도교육청·전남 FFK연합회·한국농업교육협회가 주최하고 전남 FFK연합·전남생명과학고가 주관하며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다.

미래 농업인 육성을 위해 '자연을 생각하는 농업! 사람과 하나되는 농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63개 농업계고등학교에서 9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농업에 대한 기술과 역량을 겨룬다.

이번 대회는 농업지식과 기술을 겨루는 전공경진 분야와 실무능력을 겨루는 기능경진 분야, 과제이수를 통해 경영능력과 연구 성과를 겨루는 과제발표 분야, 농업계고 학생들의 농업관련 상식 수준을 겨루는 골든벨과 축제인 예술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18일에는 한국농업교육협회와 한국농산업교육학회 주관으로 공동학술대회도 열린다.

오는 20일 오전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열리는 대회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장석웅 전남교육감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한다. 문의 전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061-260-0571.



광주 수완고 학생들이 음성 꽃동네 봉사활동
광주 수완고등학교 2학년 학생 40명이 지난 15일 충북 음성군 꽃동네를 찾아 봉사활동을 벌였다. 수완고는 희망학생들을 모집해 올해로 3년째 꽃동네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대 일자리센터 '아취멘' 콘서트 개최

조선대학교(총장 강동완) 대학일자리센터(센터장 이인화)는 최근 '아취멘' (아는 취준생은 다 한다는 멘토링) 콘서트를 해 오름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취멘은 국내의 다국적 기업 및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광주·전남 청년들에게

다국적 기업의 인재상 및 비전, 해외 진출 정보와 취업전략을 제공해 주는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국가별·직무별 현직자 전문 멘토링과 특강으로 구성된 이번 아취멘 콘서트는 참여 청년들에게 글로벌 취업에 대한 목표설정과 직무선택의 중요성 및 해외취업에 동기 부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나이키, IBM 등 외국계 현직 멘토들이 기업을 선택한 이유, 취업의 인재상 및 취업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과 회사의 생생한 분위기 등을 특강과 전문가 패널토론, 멘토별 소그룹 1:1 멘토링 형식으로 진행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 2018 여학생 ROTC 선발 호남권 최고 합격률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2018학년도 여학생 ROTC(학군사관) 선발시험에서 호남권 최고 합격률을 기록했다.

광주대는 "2018학년도 여학생 ROTC 59기" 선발시험에 응시한 광주대 국방기술학부 여학생 8명 가운데 7명이 최종 합격, 광주·전남지역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90%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합격한 학생들은 2년 동안 학과 및 군사교육을 이수한 뒤 졸업과 함께 육군 소위로 임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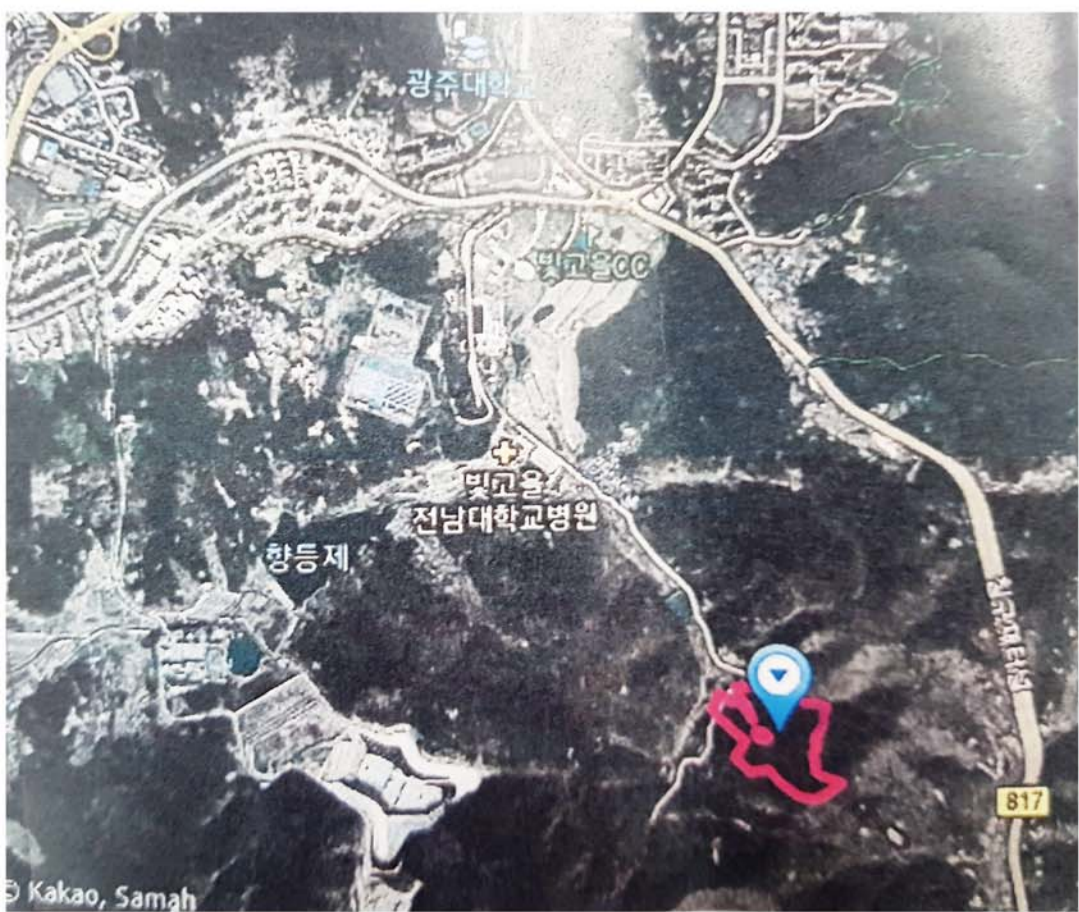
여자 후보생은 남학생 선발 과정과 달리 전국을 10개 권역별로 구분해 선발한다.

호남권에 배정된 여학생 ROTC는 모두 30 여명이어서 경쟁률이 치열하다. 필기 시험에 이어 체력검정, 면접 등을 차례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선발되기가 어렵다.

광주대 국방기술학부 김찬환 학부장은 "수준별 맞춤형 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으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광주대에서는 국방기술학부 남학생 30명이 육·해·공군장교 시험에 합격했고, 21명이 항공정비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장/단기 투자가치 좋습니다. 덕남동 임야, 싸게 팝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20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이전비용 매도자부담)
- 문의. 010-6834-7400